

《삼국유사》에 구현된 일연의 교육사상*

안 경 식
(부산대학교)

<요 약>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일연의 《삼국유사》를 한 권의 교육고전으로 보고, 그 속에 구현된 일연의 교육사상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일연의 시대는 내부적으로는 무신집권기였고, 대외적으로는 장기간의 몽고 전란의 시대여서 국토는 황폐했고, 백성들의 마음은 절망감으로 가득 차있는 상황이었다. 전란이 끝나고 일연은 임금의 스승격인 국사(國師)의 지위에 올랐으며, 이 무렵 《삼국유사》를 집필했다. 일연이 《삼국유사》를 쓴 의도 혹은 전략은 《삼국유사》를 통하여 이 땅이 불교적 이상세계인 불국토이며, 이 땅의 민중들이 이상적 인간인 불보살임을 '인식'시키는 것이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의도는 교육학의 관점에서 볼 때 교육적 의도라 이해할 수 있다. 《삼국유사》는 그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고안된 텍스트이자 미디어다. 일연의 교육사상은 한 마디로 불국토론이라 할 수 있으며, 《삼국유사》의 각 편은 불국토론과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이> 편에서는 시조와 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불국토의 설계자이자 책임자들이다. <홍법> 편은 불국토 건설을 위해 이 땅에 진리의 가르침인 불교를 들여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탑상> 편에서는 부처의 가시적 상징인 탑과 불상을 통해 이 땅이 곧 불국토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의해> 편에서는 불국토를 이루기 위해 애썼던 스승들에 관해 서술하고 있고, <감통> 편에서는 중생들이 불국토에 들어가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끝부분인 <피은> 편에서는 숨어 드러나지 않았으나 불국토 건설에 공이 있는 스승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효선> 편에서는 부모님을 물질로 모시는 것을 넘어 불국토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 진정한 효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일연은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불국토론을 독자들에게 전달, 해설하고 있는데, 이 전달과 해설이 교육적 실천이자 교육사상의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일연의 《삼국유사》은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인 《국가》에 비견할 수 있는 교육고전이며, 한국의 교육사상 연구에서 간과할 수 없는 저술이다.

주제어: 삼국유사, 일연, 한국의 교육고전, 불국토, 이상국가론, 불교교육사상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I. 머리말

자연과학 분야와 달리 인문학 분야의 글쓰기는 무언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밝히려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한 경우가 많다. 선종의 승려인 일연(一然, 1206-1289)이 70세가 넘은 만년에, 전공인 불교 논서를 쓴 것이 아니라 《삼국유사》를 썼다는 것은 다소 뜬금없는 일이다. 이미 삼국시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그가 《국사》, 《본사》 등으로 칭한 《삼국사기》가 당당히 통용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遺事’라는(遺史가 아닌) 이름을 붙여 또 다른 책을 펴냈다는 것은 특별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김부식에게 당신이 편찬한 《삼국사기》가 시원찮다는 속내를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 당대의 정치인들에게 나라꼴이 마땅찮다고 일갈하고 싶었던 것일까. 아니면 오탁악세에 허덕이는 민중들에게 진리의 언어로 화염 세계의 집을 지어 보이며, 이런 세계도 있다는 것을 넌지시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가 명시적으로 말해주지 않으니 우리는 짐작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렇게 짐작한다. 그가 하고 싶은 말 속에는, 생각 속에는 다른 것은 몰라도 ‘교육’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그런데 《삼국유사》(이하 《유사》로 표기함) 어디에서도 ‘교육’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교육’이라는 말을 쓴 적도 한 적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의 머릿속에는 분명 ‘교육’이라는 개념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보고 싶은 것이다. 심지어 그를 한 명의 교육가(교육사상가, 교육실천가)로 보고 싶고, 그의 《유사》를 한 권의 교육고전으로 위치시키고 싶은 것이다.

그런데 이미 몇 십 년 전에 《유사》를 한국의 교육고전으로 본 사람이 있다. 박은목은 《한국의 교육고전 연구》(1983)라는 책에서 고려시대의 교육고전으로 《유사》를 든 적이 있다. 그는 “삼국유사에는 홍익인간이라는 교육이념의 근거가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비록 신화적 서술이기는 하나 이 문헌의 기록에 근거를 두고 나라의 건국이념이 채택되었고 교육이념이 설정되었다. 역사적 사실로서는 다른 각도에서 고증되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으나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이념의 근거가 이 문헌이고 보면 삼국유사에 나타난 홍익인간이념은 좀 더 다양하게 그 정신과 이념의 탐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어떤 사실(史實)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로서의 가치를 넘어서서 정신사적 측면에서의 교육사상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였다(박은목: 1983, 74-75). 전체가 단 한 페이지에 그치는 이 글을 통하여 《유사》가 교육고전임을 충실히 밝힐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유사》를 교육고전으로 주장하는 근거도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이념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는 없는 것이 아쉽다. 그러나 《유사》를 교육고전으로 주장한 그 자체만으로 선구적인 견해임에 분명하다. 이제 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고자

한다. 일연의 《유사》가 일연의 교육사상을 담고 있는 교육고전이 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

그 동안 《유사》의 성격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었다. 이미 《삼국사기》와 더불어 역사서로서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그밖에도 불교사서나 고승전에서 설화집이나 야사집으로 보는 견해까지 다양한 시선들이 있어왔다(김문태, 1989: 85; 채상식, 2017: 276). 여기에 더하여 연구자는 《유사》에 일연의 교육적 시선이 있었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연이 이 책에 착수한 것은 그의 만년이다. 그의 시대는 잘 알려져 있듯이 몽고 전란의 시대다. 1231년에 시작된 몽고의 침입은 1259년 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6차례나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국토는 황폐해졌고, 백성의 삶은 피폐해졌다. 거란의 침략을 불교의 힘으로 막고자 현종 연간에 조성한 대장경(초조대장경)이 모두 불타는 등 불교계 역시 큰 피해를 입었고, 이를 일연은 생생히 목격하였던 것이다. 또 당시의 정권의 실력자 정안(鄭晏, ?~1251)이 고향 남해에 지은 절에 머물면서 남해의 분사대장도감(分司大藏都監)에서 조성되고 있던 팔만대장경 작업을 보았을 것이다(채상식, 2017: 105-110). 전쟁 후, 일연은 선사, 대선사를 거쳐 국사(國師)의 위치에 올라 왕의 신임을 받고 한 동안 개경에 머물러 있었으나 95세의 어머니를 ‘핑계’ 삼아 낙향하였다. 이때 그는 《유사》를 집필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아 그의 《유사》는 그냥 한 권의 역사책이나 불교 설화집이 아니다. 그가 이 시기에 《유사》를 집필한 것은 그의 일생 최후의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그가 일생 남긴 저작은 100여 권이라고 그의 비문(高麗國華山曹溪宗麟角寺迦智山下普覺國尊碑銘并序)은 적고 있다. 모두 불교 관련 저술이다. 《유사》도 불교 저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전의 교학적 저술들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책이다. 정말 《삼국사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을 보충하는 또 한 권의 저술이 필요했던 것일까. 연구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일연의 《유사》는 불교인으로서의 역할과 국가의 스승[國師]으로서의 역할이 합쳐져 이루어진 것이다. 승려이자 국사로서 일연이 《유사》를 저술한 것은 자기 방식대로의 ‘국가 재건 프로젝트’였다. 그 프로젝트를 그는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현실 정치가가 아니었던 것이다. 당대 최고의 불교지성이었던 그는 불교적인 국가 재건론을 구상했고, 그것을 《유사》에 담았다. 그의 구상을 연구자는 이 글에서 불국토론(佛國土論)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그것은 이 땅이 불국토이며, 이 나라 백성이 불보살이라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고, 그러한 세계와 국가 건설에 다 함께 참여하자는 것이다. 일연은 이러한 불국토론을 당대 혹은 후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으며, 그 전달 미디어로 《유사》라는 서물(書物)을 활용하게 된 것이다. 《유사》는 일연의 이상국가론이 담긴 텍스트이며, 여기에는 일연의 교육적 시선이 담겨 있다. 그런 면에서 일연의 《유사》는 플라톤의 《국가(The Republic)》에

비견될 수 있다. 플라톤이 당시 아테네의 어지러운 정치 상황에서 새로운 국가, 이상국가를 꿈꾸고 그것을 《국가》를 통해 구체화하였듯이, 일연 역시 나라가 깨어지고, 백성들이 갈 길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적 이상국가인 불국토론을 구상하고 그것을 《유사》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교육가로서의 생각이라 할 수 있고, 《유사》에 펼쳐진 그의 생각은 교육사상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 II 장에서는 일연의 불국토론이 《유사》에 어떤 형식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구현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결론에서는 그 생각이 교육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기로 한다.

II. 《유사》에 구현된 불국토론과 일연의 교육사상

1. 〈기이〉편: 불국토 건설의 책임자들

일연은 《유사》의 편찬 동기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한 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기이(紀異)〉편의 서문이다. 〈기이〉는 분량 면에서도 전체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순서 면에서도 〈왕력(王曆)〉편에 이은 두 번째 부분이다. 〈왕력〉은 삼국시대 왕들의 세계(世系)에 대한 간략한 기록을 표로 엮은 것으로 책 전체의 참고자료에 해당한다. 그러고 보면 〈기이〉가 실질적인 첫 부분이다. 다른 편은 서문이 없지만 〈기이〉편은 본문 시작 전에 서문이 있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기이〉의 서문은 책 전체의 서문이라 해도 안 될 것이 없다. 이 서문을 세 단락으로 구분하여 우리말로 옮겨보면 이러하다.¹⁾

- (1) 대저 옛 성인이 예와 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과 의로써 교화를 펼칠 때,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일어날 적에는 분명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는데, 부명과 도록을 받아 큰 변화의 기회를 얻어 정권을 잡아 대업을 완수하게 되는 것이다.
- (2) 그래서 하도낙서가 나와 성인이 등장한 것이다. 무지개가 신모를 둘러싸고 나서 복희씨

1) 이 글에서의 《유사》의 인용문 번역은 민족문화추진회의 판본(1982)을 저본으로 번역한 것이다. 한글 번역은 이재호(2006), 하정룡(2003) 등의 번역을 참고하였으나 대부분 필자가 다시 하였기에 따로 주석으로 표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본문에서 따옴표 처리된 원문 인용도 민족문화추진회에서 간행한 책을 바탕으로 필자가 번역한 것이고, 경우에 따라 의역을 한 것이 많아 역시 따로 주석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가 탄생했고, 용이 여등에게 교감하여 염제를 낳았다. 황아는 공상의 들에서 놀다 백제의 아들이라 스스로 칭하는 신동과 교통하여 소호씨를 낳았고, 간적은 알을 삼켜 설을 낳았다. 강원은 발자국을 밟아 기를 낳았고, 요는 잉태한 지 14개월 만에 태어났고, 패공은 용이 큰 못에서 교통하여 태어났다. 이후의 일은 어찌 가히 다 기록할 수 있으랴.
 (3) 그러니 삼국의 시조가 신이함을 나타내었다고 해서 어찌 괴이한 일이 될 수 있으랴. 이 것이 <기이>가 여러 편 가운데 첫머리에 실린 뜻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일연이 이 서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삼국의 시조의 신이함의 정당성이다.²⁾ 그는 왜 신이함을 정당화하려 했을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역사를 위대한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라는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관점만으로 일연과 《유사》를 다 설명할 수 없다. 사실 이 서문은 <기이>편의 서문 형식으로 <기이>의 앞부분에 서술되어 있기에 <기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서술하고 있는 내용이 특이한 것은 <기이>편만이 아니다. 책 전체가 다 그러하다. 그래서 이 글은 단지 <기이>편의 서문에 그치지 않고 책 전체의 서문이라 할 만하다. 이 책 전체가 기이서(紀異書), 즉 특별한 이야기를 담은 책이기 때문이다. 《유사》는 일반적인 역사책이 아니다. 일반적이라면 오히려 《삼국사기》 쪽이다. 《유사》는 왜 ‘遺史’가 아닌 ‘遺事’인가. 《삼국사기》에 담기지 못하여 버려진 이야기, 즉 자투리 이야기란 뜻인가. 그렇게 보아온 견해들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유사》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유사》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배제하고 오히려 특별하고, 성스러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세상사에 일반적인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일은 누구나 알 수 있고, 특별히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일연이 《유사》를 만든 의도는 특별함을 기록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三國遺事’의 의미는 삼국에서 일어난 ‘특별한 일’, ‘신이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³⁾, 그 의도를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다.

- 2) 이 서문은 일종의 삼단논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형적인 삼단논법은 (1) 모든 사람은 죽는다. (2)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3)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라는 것이다. 여기서의 변형된 삼단논법을 제시하고 있다. (1) 제왕의 탄생이 특이한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다. (2) 역사상 모든 성인의 탄생이 다 특이하였다. (3) 삼국의 시조가 신이한 것 역시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는 형식이다. 결론은 삼국의 시조의 신이함은 다른 예에 비추어 보아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 3) ‘삼국유사’와 같은 말은 영어로 번역하기 까다롭다. YBM 사전을 보니 ‘The Heritage of the Three States’로 번역하고 있고, 영자 신문에서는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나름대로 고심한 번역으로 보인다. ‘유사’를 Heritage나 Memorabilia로까지는 몰라도 episode나 anecdote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번역은 ‘The Sacred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다. 《유사》는 사람들의 무지로 버려진 이야기일 수는 있으나 버려져서는 안 되는 이야기다. 성스러운 이야기, 특별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이야기다.

<기이>편은 둘로 나누어져 있다. 제1, 제2로 구분되어 각각 36항목, 23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 항목은 고조선에서부터 마한, 낙랑, 대방, 발해, 부여, 가야 등과 고구려, 백제를 거쳐 신라의 역사로 이어진다. 신라의 경우, 시조 혁거세왕에서부터 역대 왕들의 신이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제2에서도 문무왕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왕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이함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만 왕 뿐 아니라 그 왕들의 치세기에 활동했던 사람들의 신이함에 대해서도 아울러 기록하고 있다. <기이>편은 앞서 말한 서문에 이어 ‘고조선’조를 맨 앞에 배치하고 있다. 삼국의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면서 왜 고조선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역사의 시초가 고조선이고, 그것을 이어 받은 나라가 삼국과 고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우리는 《유사》를 볼 때 일연의 글쓰기에 주목해야 한다. 일연은 수많은 사서와 불교 경전과 사지(寺誌), 그 밖의 문헌들을 참고, 인용하고 있다. 그러니 일연의 견해는 찬(讚)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유사》를 단지 편찬서 정도로 낮추어 보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백번 양보해서 설령 그러하다 해도 그 편찬을 결코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된다. 그 편찬 과정에서도 그의 계획과 의도가 다 반영되기 때문이다.

‘고조선’조는 네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단락 첫 문장을 “《위서(魏書)》에 이르기를…”로 시작하고 있고, 둘째 단락을 “《고기(古記)》에 이르기를…”로 시작하고 있다. 셋째 단락은 “당《배구전(裴矩傳)》에 이르기를…”로 있고 있다. 마지막 단락은 “《통전(通典)》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다. 그리고 보면 <기이>편은 모두 인용문으로 시작해서 인용문으로 끝난 것처럼 되어 있다. 일연의 이야기는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일연은 곳곳에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면, 단군왕검이 도읍으로 정했다는 아사달에 대해서는 “경(經)에는 무엽산이라 했다. 또 백악이라고도 했고, 백주 땅에 있다고 했다. 또 개성의 동쪽에 있다고 하기도 했는데, 지금의 백악궁이 이곳이다.”라고 적고 있다. 또 환인을 “제석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태백산정에 대해서 “지금의 묘향산”이라고 했다. 또 단군왕검이 평양성에 도읍을 정한 해가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이 되는 경인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요임금의 즉위 원년이 무진년이기 때문에 즉위 50년은 정사년이지 경인년이 아니다. 사실이 아닌 것 같다.”고 하였으며, 평양성이 “지금의 서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일연의 이러한 글쓰기는 일견 단지 상세한 주석에 지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일연의 글쓰기는 신화를 역사화하려는 시도다. 신화를 단지 신화로만 읽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역사가 되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단군왕검의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현현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 신화는 나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그것이 일연이 《유사》를 쓴 이유다.

나의 이야기가 된다. 홍익인간, 재세이화가 고조선의 건국이념이 아니라 지금, 고려 사회가 계속 이어가야 할 정교이념이 되는 것이다.

앞서 일연의 《유사》는 그냥 역사책이 아니라 했다. 그것은 ‘국가 재건 프로젝트’, 즉 이상국가론을 말하기 위한 미디어라고도 했다. 그 의도가 〈기이〉편의 첫째 항목인 ‘고조선’조에 나타나 있다. 일연의 ‘고조선’조는 일견 고조선의 건국 과정에 관한 신화를 인용하여 소개하고 있고, 그에 대해 일연은 간략한 설명만 보탬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의 설명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비록 간단한 주석의 형태이지만 그의 말에는 이상국가론을 뒷받침할 만한 이야기가 있다. 단군은 고조선을 건국한 사람이지만 그 단군의 조상은 환인이다. 환인을 그는 “제석이다[帝釋也]”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고기》의 기록이 아니라 일연의 해석이다. 제석은 인드라(Indra), 즉 제석천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중심인 도리천(忉利天)의 주재자다. 일연이 환인을 제석이라고 한 것은 고조선이 전쟁이나 정치적 투쟁을 거쳐 건국한 여러 나라 가운데 한 나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우주적 중심에 있는 나라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 땅이 불교적 인연이 있는 나라임을 말한 것이고, 처음부터 불국이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을 《유사》의 첫머리에 딱 박아 놓음으로써 불국 도리천의 역사가 고조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은 그 불국의 역사를 잊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환웅의 홍익인간의 이념도 일연의 관점에서 본다면, 불국토 건설의 이념과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런 건국 사업은 정치와 교육을 배제하고 이루어질 수 없다. 특히 건국이념으로 알려져 있는 홍익인간의 이념 달성은 각종 ‘교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 그 ‘교육 사업’의 총책임자가 신이한 능력을 가진 군왕(君師)이며, 군왕의 명을 받은 이가 풍백, 우사, 운사이며, 사업의 내용은 농업 교육[主穀]과 의, 생명 교육[主病, 主命], 법, 정치교육[主刑] 그리고 윤리, 도덕 교육[主善惡] 등 인간사 360여 가지의 일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를 교육적 방식으로 달성하겠다는 것이 재세이화(在世理化)의 이념이다. 왕은 재세이화의 총책임자다.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어쩌면 그 시대의 가장 전형적인 방식은 무력이었을 수 있다. 힘으로, 강제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절감했을 수 있다. 폭력의 시대일수록 평화를 이야기하게 되는 법이다. 일연의 시대도 마찬가지다. 일연의 시대는 무력의 시대이자 전쟁의 시대였다. 대내적으로는 무신이 통치를 하던 시기였고, 대외적으로는 몽고의 침입으로 나라가 축대밭이 된 시기다. 이 시기, 일연에게 간절했던 것은 무엇일까. 안정이 아니었을까. 평화가 아니었을까. 이 시대, 국가의 스승인 국존으로서 일연이 꿈꾸었던 이상적인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

그것이 <기이>에, 《유사》에 드러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유사》에는 재세이화 이념에 이어 광명이세(光明理世)의 이념도 제시되어 있다. 혁거세왕의 혁거세라는 말은 달리 불구 내라고도 하는데, 그 의미가 바로 빛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광명이세라고 일연이 풀이하고 있다. 광명이세와 제세이화, 홍익인간은 사실상 동일 선상에 있는 말이다. 이 말들은 《삼국사기》나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말이다. 일연이 굳이 이 말을 채택하고 쓴 것은 그가 바라는 나라의 모습이 이 말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재세이화에서 ‘이화’나 광명이세에서 ‘이세’는 정치적으로는 통치의 의미이지만, 교육에서는 가르침의 의미다. 가르침과 통치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가르침은 통치의 한 방식이고 통치 역시 가르침의 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전통사회의 특징을 정교일치라고 한다. 여기서 정은 정치, 교는 종교, 즉 제사다. 정치와 종교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종교는 정치의 한 방식으로 존재했던 것이다. 그래서 석가모니를 전륜성왕(轉輪聖王)이라고 하고, 공자를 문선왕(文宣王)이라고 하는 것이다. 일연의 머릿속에는 이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국가는 선의 이념, 빛의 이념을 실현하는 하나의 공동체이며, 왕은 그 공동체를 교화하는 총책임자이자 스승이라는 것이 <기이>에 나타난 일연의 교육적 아이디어다.⁴⁾ <기이>의 초반에는 주로 시조가 탄생하여 국가를 형성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이후는 주로 군왕의 신이함이나 혹은 국가, 군왕과 관련한 신화의 신이함 등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이>의 주인공은 사실상 군왕이다. 왕이 주인공인 이유는 왕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여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홍익인간, 재세이화, 광명이세를 실현할 수 있는 주인공이 건국의 시조들이고, 그 시조들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이 군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는 본(本)이 되고, 모델이 된다. 이 땅의 역사는 천상의 우주적인 것을 재현하고 반복하는 것이다. 군왕은 우주적 사건들을 재현하는 의례의 주관자가 되고, 그 의례는 초월적 교육관에서는 교육적 행위가 된다.⁵⁾ 군왕은 일연이 <기이>에서 내세운 교육적 모델인 셈이다.

2. <홍법>편: 불국토 건설을 위해 진리[法]를 일으킨[興] 사람들

요즈음 논문을 쓰든지 책을 쓰든지 키워드(keyword)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한다. 독자

4) 교화(教化)는 유, 불, 도에서 모두 쓰이는 말이다. 그러나 그 성격은 차이가 있다. 유가의 교화가 왕의 정치적 교화를 말한다면, 불가의 교화는 불보살의 감화, 섭화(攝化)를 말하고, 도가의 교화는 무위이화(無爲而化)를 말한다.

5) 초월적 교육관이라는 말은 안경식, 《한국전통아동교육사상》에서 현대의 합리적 교육관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한국 고대 사회의 신화적, 무속적 교육관의 특성을 지칭한 개념이다. 안경식(2005). 《한국전통아동교육사상》. 학지사, 76-79쪽.

들이 이 논문,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검색하는데 유용하다. 《유사》의 키워드는 무엇일까. 필자는 일연의 생각이 책의 목차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왕력>에서 왕의 계보를 정리하였고, <기이>에서 국가와 국가를 일으킨 사람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런 점에서 《유사》의 첫 번째 키워드는 ‘국가’라 말할 수 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이상국가’다. 그렇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 두 번째 키워드는 그 이상국가의 실현과 관련한 것이어야 한다. 플라톤의 이상국가가 정의(正義)가 실현되는 나라라면 일연이 생각하는 이상국가는 불교적 진리, 즉 불법(佛法)이 구현되는 나라다. 따라서 《유사》의 두 번째 키워드는 불법 즉 진리여야 한다. <홍법>은 바로 불국토 건설을 위해 불교적 진리를 이 땅에 들여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플라톤 철학에서 철인왕(哲人王)이 있다면 불교에서는 전륜성왕이 있다. 전륜성왕은 법의 수레바퀴, 즉 법륜을 굴러 진리와 정의로 나라를 통치하는 이상적인 군주다. 이상적 군주가 통치하는 시대가 이상적 시대고, 이상적 사회다. 이 이상적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예비 과정이 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홍법>이다.

<홍법>은 <신주>, <효선> 등과 함께 비교적 짧은 7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순도조려(順道肇麗)’에서는 고구려에 불교를 도입한 순도와 아도의 이야기를, ‘난타벽제(難陀闢濟)’에서는 백제 불교를 연 마라난타의 이야기를, 그리고 ‘아도기라(阿道基羅)’에서는 신라 불교의 기초자인 아도를, 그리고 ‘원종홍법염축멸신(原宗興法猷觸滅身)’에서는 불법을 일으킨 법흥왕과 순교자 이차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대체로 이야기마다 불교의 도입과 국가의 관계를 조금씩 말하고 있다. 백제의 경우, 침류왕(384-385 재위)이 마라난타를 맞아 궁중에 두고 예로써 공경했다고 했고, 아신왕(392-405 재위)이 즉위한 후 백성들에게 불교를 믿어 복을 구하라고 했다고 하였다. 또 신라의 경우, 눌지왕 때 목호자가 왕녀의 병을 치료해주었고, 미추왕 때 아도법사가 성국공주를 치료해주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샤먼도 그러하지만 불교의 역할도 도입 초기에는 주로 왕실에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병을 치료하는 것과 이상세계를 건설하는 것을 별개의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앞서 보았듯이, 단군신화에도 환웅이 “질병을 주관하였다[主病].”는 말이 있다. 병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은 홍익인간의 실질적 내용이다. 단군신화에서는 먹을 것 걱정 없는 세상, 천세를 누리는 세상, 아픈 이 없는 세상, 남 해치지 않는 세상,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세상 등을 이상적인 세상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니 치병(治病)과 이상국가 건설을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⁶⁾

6) 구한말의 상황을 한 번 생각해보자. 조선 후기부터 서학이라는 학문의 형태로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국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수많은 순교자를 만든 역사가 있다. 그러나 1882년, 조미수호조약이 맺어지자 조정에서도 더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서양

일연의 불교적 이상국가론은 ‘원종홍법염축멸신’에서 자세히 이야기된다. 원종은 법흥왕이다. 법흥왕은 신라 흥법의 왕이다. 그러니 법흥왕의 입을 빌어 이상국가 건설에 왜 불교가 필요한지를 말해야 한다. 법흥왕은 왕위에 오르고 자극전(紫極殿)에 올라 동쪽을 바라보며, “옛날 한나라 명제(明帝)가 꿈에 감응하여 불법이 동쪽으로 흘러 들어왔다. 내가 왕위에 오르고 역조창생을 위해 복을 닦고 죄를 없앨 수 있는 곳을 만들고자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신하들이 왕의 이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임금의 절 공사를 명하였지만 신하들의 반대로 절 공사가 지지부진하였다. 이에 이차돈이 임금에게 순교를 자처하였고, 목에서 흰 젖이 한 길이나 솟구쳤고, 목은 금강산 꼭대기에 떨어지는 이적이 일어났다. 이러한 희생은 이상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대흥륜사(大興輪寺)라는 절의 공사에 착수했다. 대흥륜사의 륜은 불법(진리)의 수레바퀴다. 흥륜은 그 수레바퀴가 온 신라땅을 굴러다니는 것으로, 이상국가가 건설되는 것을 상징한다. 일연은 그 과정을 <흥법>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태청 초년에 양나라의 사신 심호(沈湖)가 사리를 가져왔고, 천수 6년에 진나라 사신 유사(劉思)와 명관(明觀) 스님이 불경을 받들어 왔다. 절들은 별처럼 벌여 있고[寺寺星張], 탑들이 기러기 행렬 같이 줄지어 있었다[塔塔雁行]. 법당을 세우고 범종을 다니고 승대덕이 온 세상의 복전(福田)이 되었으며, 대승 소승법이 온 나라에 자비의 구름이 되었다. 타방의 보살이 세상이 나투시고-분황의 진나, 부석의 보개, 낙산의 오대 등이 이것이다-, 서역의 이름난 승려들이 이곳에 찾아오셨다. 이로 말미암아 삼한이 합쳐서 한 나라가 되고, 온 세상이 어울려 한 집이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말이 있다. 대승 소승법이 온 나라의 자비의 구름이 되었으며, 타방의 보살이 세상이 나투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 예가 분황의 진나, 부석의 보개, 낙산의 오대 등이라 하였다. 분황사의 진나는 원효를 말한다(진나는 인도의 유명한 불교학자). 원효를 비롯한 인물들과 부석사의 보개 장식, 그리고 낙산의 오대산 등이 모두 타방 보살이라고 한 것이다. 이미 신라시대에 이 땅에 이상국가가 건설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부응하여 흥법왕인 법흥왕은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가사를 입었다. 법운(法雲)이란 이름을 받아 여생을 보냈으며, 왕궁에 있는 왕의 친척들을 절의 노비로 삼았다. 왕비 역시 출가하였다. 이러한 법흥왕을 추모하여 일연은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인들이 바로 대놓고 포교를 하지는 않았다. 정치적 상황은 조성되었지만 사회, 문화적 상황이 뒷받침 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다. 병원을 지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본격적 전도의 서막이었던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 의 세계를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였다. 신라 불교의 도입과정도 마찬가지다.

성인(聖人)의 지혜는 영원함을 도모함에서 오는 것이요(聖智從來萬世謨)
구구한 세상 말로는 추호도 속일 수 없다(區區興議謾秋毫)
법륜의 이념을 통해 금륜을 굴리니(法輪解逐金輪轉)
태평성세가 시작되니 부처님의 빛이 드높다(舜日方將佛日高)

태평성세, 이상세계의 실현은 전법륜(轉法輪), 즉 법의 바퀴를 굴리는 것으로 비유된다. 법륜은 진리의 바퀴고, 금륜은 법륜이 현실에 나타난 모습의 하나다. 신라사회에서 진리를 실현할 사람은 바로 법흥왕이고, 그래서 그가 바로 금륜왕이 된다. 일연의 이상국가론이자 교육론이 담겨있는 찬(讚)이다.

〈홍법〉편의 마지막에 편찬된 ‘법왕금살(法王禁殺)’과 ‘보장봉로보덕이암(寶藏奉老普德移庵)’은 실은 홍법, 즉 불교 도입의 이야기가 아니다. ‘법왕금살’은 백제의 법왕(法王, 599-600 재위)이 살생을 금한 이야기인데, 법왕은 백제 29대왕이다. 즉위한 해 겨울에 살생을 금하는 조서를 내려 민가에서 기르던 매 따위를 놓아주게 하고, 물고기를 잡고 사냥하는 기구를 불살라 일체 살생을 금지하였다. 그는 또 이듬해 30명에게 출가를 허락하였고, 왕도인 사비성에 왕흥사(王興寺) 신축을 시작하였으며, 아들 무왕이 완공하여 절 이름을 미륵사라 하였다. 미륵사는 미륵사상의 이상세계인 도솔천을 연상시킬 정도로 수려하게 꾸며져 있었다 한다. 일연의 생각은 역시 찬에 압축되어 있다.

짐승에게 너그러운 조칙은 온 세상을 은혜롭게 하고(詔寬獮狝千丘惠)
은택이 돼지와 물고기에 미치니 사해가 어질게 되었구나(澤洽豚魚四海仁)
성군이 세상을 버린다고 말하지 말라(莫謔聖君輕下世)
위쪽 도솔천에는 바야흐로 꽃피는 봄이니(上方兜率正芳春)

일연은 법왕을 성군(聖君)이라 칭했다. 그 은택이 들짐승, 날짐승, 물고기에까지 미쳤고, 이상세계인 도솔천을 구현하기 위해 미륵사라는 절까지 만들었으니 그렇게 칭할 만하다. 사실 백제에는 성왕(聖王, 523-554 재위)이라 칭하는 왕이 따로 있다. 물론 성왕도 백제 불교를 진흥시킨 인물이다. 그런데 법왕은 채 2년도 되지 않는 기간밖에 재위하지 못했으며, 《삼국사기》에 그와 관련한 기사는 모두 불교적인 내용밖에 없다. 이러한 그를 일연은 〈홍법〉의 한 주인공으로 보았던 것이다. 땅을 넓히고, 국가를 부강하게 한 것으로 성군의 기준을 삼지 않았던 것이다. ‘보장봉로보덕이암’은 고구려 보장왕(642-668 재위)이 도교를 받들므로 이에 반대 의견을 펼치던 보덕 화상이 거처를 남쪽(백제)으로 옮겼다는 이야기다. 보장왕은 잘 알려져 있듯이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다. 연개소문이 실권을 가진 때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고구려의 입장에서 보면 홍법의 실패 사례가 되고,

백제의 입장에서 보면 흥법의 사례가 된다. 역사학자 최병헌은 이 설화와 관련하여 “6세기 후반 이후 대내적으로 중앙의 지배세력이 분열되고, 대외적으로는 외국세력의 압력이 가중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자, 그때까지 국가의 발전과 왕권의 강화에 기여했던 불교도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불교계의 변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수많은 승려들이 신라와 백제, 그리고 왜 등 외국으로 망명했다는 사실이다. 그 가운데 특히 유명한 사건은 제24대 양원왕 7년(551) 혜량(惠亮)의 신라로의 망명과 제28대 보장왕 9년(650) 보덕의 백제로의 망명이었다. 그리고 제25대 평원왕 26년(584) 무렵 왜에서 활약하기 시작한 혜편(惠便)을 비롯하여 그 이후 수많은 고구려 승려들의 일본지역으로의 망명이 이어졌다.”라고 당시 불교계의 동향에 대해 이야기 했다(법보신문, 2018년 6월 27일자). ‘보장봉로보덕이암’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냥 설화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역사적 상황과 맞추어 보면 설화가 담고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된다. 최병헌 교수의 주장은 6세기 후반부터 고구려는 대내적으로는 귀족들의 권력 다툼과 대외적으로는 돌궐의 등장하여 서북지방을 위협하였고, 백제, 신라와의 치열한 전투 등으로 사회가 위기에 처하자 고구려의 사회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고승들이 해외 망명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국가 멸망을 초래한 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의 설화 버전이 ‘보장봉로보덕이암’이다. 일연은 이 설화를 활용하여 그의 불교적 이상국가론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3. <탑상>편: 불국토의 상징으로서 탑과 불상

일연이 생각하는 이상국가는 불국토다. 불국토는 불교적 진리가 구현된 나라다. 역사상 그 예가 석가모니가 탄생하고 아소카왕이 활약한 인도이고, 법흥왕 진흥왕이 활약한 신라다. <흥법>은 이상국가 건설에 필요한 불교적 진리[法]를 신라 땅에 도입하고 진흥시킨[興]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 지도자들이 노력한 결과 이 땅에는 “절들은 별처럼 벌여 있고[寺寺星張], 탑들이 기러기 행렬 같이 줄지어 있었다[塔塔雁行].”고 했다. 온 타방세계의 불보살들마저 이 땅에 상주하게 된 것이다. <탑상>편은 진리를 이 땅에 진흥시킨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눈으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탑상>편에는 시각적인 미디어가 각 항목의 표제어로 등장하고 있다.

탑상이란 말은 탑과 불상이다. 탑과 불상은 석가모니의 상징이자 진리의 상징이다. 근본 팔탑(八塔), 사리 병탑(瓶塔), 회탑(灰塔)과 같은 초기의 탑이 석가모니의 육신의 흔적을 보관하는 무덤의 역할을 한 것이라면, 대승불교 시대에 등장한 불상은 석가모니에 대한 추억, 회상의 상징이 아니라 불교적 진리의 상징이 된다. 일연은 <탑상>에서 탑과 불

상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절과 전각에서부터 연좌석(宴坐石), 종(鐘), 산, 벽화, 사리 등 다양한 것들이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들을 대표한 명칭이 탑상인 것이다.

탑상 하나하나의 의미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연의 이상국가론에서 탑상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종교적 의미다. 종교적으로 이 땅이 불국토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다. 《유사》의 〈탑상〉편의 첫머리에는 〈가섭불연좌석(迦葉佛宴坐石)〉항목이 배치되어 있다.⁷⁾ 가섭불은 석가모니 이전의 과거 7불 가운데 여섯 번째 부처다. 이 가섭불이 좌선하던 곳이 연좌석이다. 이 연좌석이 황룡사에 있고, 연좌석이 있는 이 터가 전불시대의 절터라는 것이다. 신라에는 칠처가람이라 하여 과거칠불이 머물면서 설법하던 사찰이 있었는데, 흥륜사(興輪寺)·영흥사(永興寺)·황룡사(皇龍寺)·분황사(芬皇寺)·영묘사(靈妙寺)·사천왕사(四天王寺)·담엄사(曇嚴寺)가 그것이다. 일연은 황룡사를 찾아 불전(佛殿)의 뒤편에 있던 연좌석을 친견하고, 그 모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돌의 높이는 5, 6척 쯤 되고, 둘레는 겨우 3주(肘) 정도며 세워져 있는데 꼭대기는 평평하였다. 진흥왕대에 절을 세운 이래 두 번의 화재를 만나 돌에는 터진 흔적이 있다. 스님들이 석로 붙여서 보호하였다.(…) 몽고의 병란에 전각과 탑은 다 탔고, 이 돌도 거의 닳아 땅과 평평하게 되었다.

일연이 이 연좌석을 찾았을 때는 닳고 깨진 하나의 보잘 것 없는 돌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일연은 이 돌을 그냥 돌로서 본 것이 아니었다. 이 돌은 그냥 돌이 아니라 석가모니의 전불인 가섭불의 흔적이었던 것이다. 수많은 중생을 교화한 위대한 스승 가섭불이 앉아 좌선 수행하던 자리가 신라 땅 황룡사에 있었던 것이다. 요즘은 상황으로 보면, 그 돌은 앉아서 위대한 스승이 공부하던 의자이며, 황룡사는 학교다. 일연은 당시 누군가가 지어 남아 있는 찬(讚)을 소개하고 있다.

진리의 빛이 희미해진 것이 헤아릴 수 없지만(惠日沈輝不記年)
오직 연좌석만 의연히 남아 있구나(唯餘宴坐石依然)
뽕밭이 몇 번이나 푸른 바다가 되었지만(桑田幾度成滄海)

7) 민족문화추진회본의 저본이 된 서울대본을 비롯한 임신본(壬申本)에서는 흥법의 마지막 항목이 ‘동경흥륜사금당십성’이다. 그러나 그 내용이 탑상에 부합한다고 보고, 최남선의 《新丁三國遺事》(삼중당, 1943)에서는 목차는 〈탑상〉, 내용은 〈흥법〉에 넣었고, 이재호의 번역에서는 탑상의 첫 항목으로 넣었다. 여기서는 ‘동경흥륜사금당십성’을 〈흥법〉의 마지막 항목으로 본 임신본에 따라 ‘가섭불연좌석’을 〈탑상〉편의 처음이라고 하였다.

애석하게 아직도 당당히 그 자리를 지키누나(可惜巍然尚未遷)

불국토가 이렇게 폐허가 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지만, 아직도 당당하고 의연히 남아 있는 이 돌은 이상국가 재건의 강력한 근거가 된다. 황룡사는 원래 왕실 사찰이니 그곳에는 당연히 불국토의 중심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연좌석이다. 일연의 이상국가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연좌석 이외에도 이 땅이 불국토라는 수많은 증거들을 찾아 제시하고 있다. <가섭불연좌석>에 이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동성육왕탑(遼東城育王塔)>이고, 그 뒤를 잇는 것이 <금관성파사석탑(金官城婆娑石塔)>이고, <고려영탑사(高麗靈塔寺)>다. <황룡사장육(皇龍寺丈六)>과 <황룡사구층탑(皇龍寺九層塔)>, <황룡사종(皇龍寺鍾)>은 그 다음이다. 이야기의 맥락이나 순서로 보면 당연히 <황룡사장육>과 <황룡사구층탑>, <황룡사종>이 나와야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렇게 순서를 잡지 않았다. <요동성육왕탑>은 고구려 요동성 아육왕탑의 연기 설화고, <금관성파사석탑>은 금관국에 있는 파사석탑의 연기 설화다. 불국토가 신라 땅이나 경주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통일 이전의 고구려나 가락국 역시 불법과 인연 있는 불국토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들 설화가 인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불국토의 정당성을 찾으려 하였다. <황룡사장육>은 신라의 세 가지 보물 가운데 하나라는 황룡사의 장육존상 설화인데, 역시 인도와 아육왕(아소카왕)으로부터 근거를 찾고 있다. 즉 자장이 중국 오대산에서 기도할 때 문수보살이 나타나 “너의 나라의 황룡사는 석가와 가섭불이 강연을 하던 곳이다. 연좌석이 아직 그곳에 남아 있다. 천축국의 아육왕이 황철 몇 천 근을 모아 바다에 띄워 1,300 여년이 지나 너의 나라에 도착하여 불상을 만들어 그 절에 안치한 것이니 부처님의 인연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연에게서 돌은 돌이 아니고 쇠는 쇠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것은 부처님의 인연을 증명하는 상징이자 증거였던 것이다. 이 인연에 감격한 일연은 이렇게 노래했다.

사바세계 어느 곳이 불국토가 아니라마는(塵方何處匪眞鄉)
 불교의 인연은 우리나라가 최고라네(香火因緣最我邦)
 아육왕이 손대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不是育王難下手)
 월성의 옛터를 찾아온 것이니(月城來訪舊行藏)

그의 본심을 드러낸 말이다. 그는 이 땅만 불국토라고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땅이 특히 부처님의 인연이 있는 곳임을, 몽고의 병란에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진 안타까운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탑상을 통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 의미다. 불상과 불탑, 종 등은 종교적 성물(聖物, holy relics)이며, 이를

통해 신라의 산하가, 우리가 밭 디디고 있는 이곳이 불국토임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유사》가 일연의 이상국가론이라 했다. 일연이 그의 이상국가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탑상>편을 통하여 또 하나 전달하고자 한 바는 교육적 의미다. 이것은 종교적 의미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탑과 불상을 비롯한 각종 종교적 미디어들은 성스러움이 드러난 것, 엘리아데(M. Eliade)의 용어로 히에로파니(聖顯, hierophany)가 된다. 그런데 이런 성스러움은 그 자체로 성스러움은 아니다. 우리가 탑과 불상에서 성스러움을 ‘인식’할 때 탑과 불상은 성스러움을 발하게 되는 것이다. 가섭불연좌석은 언제나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가섭불연좌석이라고 명명하고, 의미를 부여할 때 성스러운 것이 된다. 그렇지 못할 때는 그것은 버려지고 깨진 돌덩어리일 수도 있다. 가섭불연좌석과 황룡사장육존상, 봉덕사종이 돌덩어리, 쇠덩어리가 아니라 성스러운 물건이 되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 의해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경험’을 할 때, 돌과 쇠는 연좌석이 되고 불상이 되어 우리의 삶에 간여하게 된다. 그 경험을 종교적 경험이라 하며, 그 경험에 의해 성현이 가능하다. 이 때 성현은 경험적 실재(empirical reality)이며, 돌과 쇠는 가섭불연좌석, 황룡사장육존상이란 이름으로 성스러운 힘을 드러내게 된다. 이것이 크라토파니(力顯, kratophany)다. <탑상>편이 보여주는 것, <탑상>편을 통해 일연이 말하고자 한 바 가운데 하나는 이 힘이다. 탑과 불상의 힘은 국가에 드러나기도 하고, 개인에 드러나기도 한다. 국가에 드러난 예가 <황룡사구층탑>이다. 신인(神人)이 나타나 황룡사의 호법룡은 나의 만아들이며, 황룡사에 9층탑을 세우면 이웃나라들이 행복하고 나라가 길이 평안할 것이라고 했다. 개인에 드러난 예가 <조신(調信)> 설화나 <분황사천수대비맹아득안(芬皇寺千手大悲盲兒得眼)> 설화다. 꿈으로라도 조신의 소원을 들어주었고, 희명의 아이에게 개인의 자비를 베풀었던 것이다. 황룡사 구층탑이 있다 해도, 낙산사 관음상이나 분황사 천수관음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종교적 성스러움을 드러내고, 힘을 드러낼 수는 없다. 그것이 성스러움과 힘을 드러내는 데에는, 즉 우리가 거기서 성스러움과 힘을 느끼는 데에는 교육 작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 작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교육 미디어가 필요하다. 탑과 불상이 그 교육매체, 교육미디어인 것이다. 이 점을 일연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일연의 《유사》에는 교육의 시선이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는 한 명의 교육가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유사》를 통하여, <탑상>을 통하여 그 성현과 역현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아이들에게 문자 텍스트를 통하여 진, 선, 미의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 일연 역시 독자들로 하여금 《유사》를 통하여 역시 진, 선, 미를 비롯한 종교적 체험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일연은 한 명의 승려이자 교육가다. 또 달리 보면 그는 한 명의 사가(史家)다. 그의 《유사》는 ‘遺事’이기도 하지만 ‘遺史’이기도 하다. 그는 역사적 지식과 방법을 통하여 독자를 진리의 장

으로 이끌고 있다. 인간은 시간의 존재다. 역사적 지식과 방법을 통한 전달은 우리에게 매우 실감을 느끼게 한다. 과거의 사상(事象)을 지금 여기에 가져와 우리의 관심을 끌게 한다. 일연은 사가로서 <탑상>편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본 바, 느낀 바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 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일연은 뛰어난 문학가다. 그는 《삼국사기》가 무시했던 수많은 신화, 설화를 채록했을 뿐 아니라 이들에 대해 자신의 느낌을 찬시(讚詩)로서 표현했던 사람이다. 일연이 놓치지 않았던 신화, 설화 역시 오늘날 텍스트와 다를 바 없다. 오늘날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주목받는 스토리텔링과 다를 바 없다. 자칫 현학적일 수 있고, 관념적일 수 있는 종교적 진리를 흥미를 배경으로 하는 설화적 방식으로 경험하도록 구조화해놓은 것이 《유사》의 <탑상>이기도 하다.

4. <의해>편: 이 땅의 진리의 해설자들

《유사》를 플라톤의 《국가》에 비유한다면, <의해(義解)>는 철인들에 대한 이야기다. 《국가》가 교육학자들의 주목을 끄는 것은 이상국가 건설에 철인이 필요하고, 그 철인인 통치계급을 비롯한 수호계급과 생산계급의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의해>의 철인, 즉 고승들을 그대로 플라톤의 철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⁸⁾ 그러나 <의해>라는 편명이 말해주듯, <의해>는 진리(義)의 해설자[解]에 대한 이야기다. 철인이 어두운 동굴의 세계에서 벗어나 이데아의 불빛을 본 사람들이듯이 <의해>의 주인공들은 이 땅에서 불교적 진리를 민중들에게 가르친 스승, 즉 고승들에 대한 이야기다. <홍법>에서는 이 땅에 불교적 진리를 이 땅에 도입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의해>에서는 그 진리의 전파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 《유사》의 각 편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첫 번째 항목이 중요하다. 첫 항목이 그 편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의해>의 첫 항목은 ‘원광서학(圓光西學)’이다. 여기서 일연은 원광의 일생을 다루고 있으나 특히 스승으로서의 모습 즉, 진리를 민중들의 수준에 맞게 해석하고 해설하는 교화자로서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의해>는 모두 14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광, 보양, 양지 그리고 인도에 유학한 여러 스님들, 혜숙과 혜공, 자장, 원효, 의상, 사복, 진표, 승전, 심지, 대현과 법해 등이 주인공이다. 이들 모두는 신라를 대표하는 탁월한 진리의 해설자들이다.

《유사》에는 <동경홍륜사금당십성>편이 있다. 신라 최초의 사찰로 알려진 홍륜사의 동

8) 플라톤의 《국가》와 일연의 《유사》는 이상국가론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각론에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두 이상국가론의 비교 문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지만 양자 사이에는 이상국가의 상태나 이상국가의 달성 방법, 구성원의 의무 등에서 차이가 있다.

쪽 벽에는 아도, 염촉, 혜숙, 안함, 의상의 소상(塑像)이 있고, 서쪽 벽에는 표훈, 사복, 원효, 혜공, 자장의 소상이 있다. 아도, 염촉은 <홍법>편에서 다루어 진 인물이고, 혜숙, 의상, 사복, 원효, 혜공, 자장은 <의해>에서 다루고 있다. 표훈은 <의해>의 표지 인물(단독으로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기이>를 비롯하여 <의해>, <효선>편에 등장한다. 불국사에 살며 천궁을 왕래하며 하늘과 소통하는 성사(聖師)로 추앙받은 인물이다.(안함은 《해동고승전》에 상세히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보면 <의해>에는 신라 십성 가운데 6명이 표지 인물로 등장한 셈이다. 물론 신라에는 그 밖의 수많은 고승들이 있다. 그들 모두가 <의해>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역시 <의해>의 기준에 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연이 <의해>편을 만들고,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가. 그 답은 <의해>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표면적으로 보면 <의해>에 포함되어 있는 스님들은 유학승이 많다. 원광, 보양, 자장, 의상, 승전 등이 중국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인도에 유학한 많은 유학승들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귀축제사’에 소개된 인물들은 모두 인도 현지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들을 <의해>에 넣은 것은 진리를 찾으려는 행동, 즉 구법의 의지를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본 것이다. 교화의 대가인 원광을 설명하는 표지 타이틀을 교화와 관련한 것으로 잡지 않고 ‘원광서학’, 즉 ‘원광이 중국에 유학을 가다’로 삼은 것부터가 그러하다. 그들의 유학은 진리를 공부하여 이 땅에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의해>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대중교화자들에 주목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원효, 혜숙과 혜공, 사복 등이다. 원효는 워낙 유명한 인물이지만 그 외의 인물들은 사실 출신이나 사적조차 불분명한 사람들이다. 혜숙은 화랑의 무리에 속해 있다가 그 무리를 떠나 적선촌에 20년간 은거해 산 인물이다. 뒤에 국선 구참공의 사냥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불살생의 가르침을 전하였으며, 여자의 침상에 누워 자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오히려 우리 중생이 분별 의식에 간혀 있음을 일러주었다. 또한 달마대사와 같이 무덤에 짚신 한 짚을 남김으로써 생사를 초탈한 모습도 보여주었다. 혜공 역시 혜숙과 비슷한 교화를 펼친 사람이다. 그는 천진공의 집에서 품팔이하던 노파의 아들이었다. 출가 후 조그만 집에 살면서 늘 술에 취해 삼태기를 지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노래하며 춤추니 사람들이 그를 부궤(負篋)화상이라고 하였다. 원효가 저술활동을 하다 막히는 곳이 있으면 묻기도 하고, 서로 장난치는 말을 주고받기도 한 사람이 혜공이다. 사복 역시 혜공과 마찬가지로 과부의 몸에서 태어난 미천한 신분이다. 12살이 되도록 말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는 장애인이어서 사동(蛇童)으로 불리었다.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죽자 고선사에 있던 원효가 그를 보고 예를 다했으나 그는 답례도 하지 않고, 옛날 불경을 싣고 다니던 암소가 죽었으니 함께 장례를 치르자고 하며, 함께 장례를 치른 사이이다. 일연

이 이같이 출신도 한미한 대중교화자들을 <의해>편에 넣은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물론 이들은 신이한 능력의 소유자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연이 주목한 점은 이들의 교화자로서의 모습일 것이다. 이들의 교화 방식은 어떻게 보면 불교의 ‘정통적인’ 방식을 벗어난 것이다. 이들은 고승으로서의 근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다. 원효를 비롯한 이들은 저자거리를 학교로 삼은 스승들이었다. 그야말로 입전수수(入廬垂手)한 사람들이다. 화광동진(和光同塵)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들이기도 하다. 저자거리란 현실이다. 지고한 진리도 고정된 경전이 아니라 살아 있는 현실 속에서 풀어야 한다. 이것이 진리의 진정한 해설이다.

<의해>편에는 물고기를 교화한 사례가 있다. 보양과 진표의 경우다. 보양은 중국에서 불법을 전해 받아 오는 길에 서해 용왕의 안내를 받아 물고기들을 위해 불경을 강했고, 돌아올 때 용왕의 아들 이목(이무기)을 데리고 와서 작감사에서 교화를 돕게 했다. 진표는 미륵보살로부터 수기를 받고 금산사에서 법석을 열어 교화를 연 사람인데, 아슬라주에 가서 어별(魚鱗)을 대상으로 불법을 강의하고, 계를 주기도 하였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못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간의 관점으로 본다면 황당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 불교의 이상세계, 일연의 이상세계는 인간 세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연이 <의해>에서 주목한 부분은 이 땅에서 새로운 불교적 진리를 꽃피운 고승들이다. 자장과 의상, 대현, 법해 등이 그들이다. 신라에 계율불교를 정착시킨 인물이 자장이고, 화엄종을 도입하고, 정착시킨 인물이 의상, 법해이며, 유가종(瑜珈宗)의 조사가 대현이다. 따지고 보면 이들이 중국으로부터 불교사상을 들여와서 이 땅에 펼친 것 자체가 의해에 해당한다.

아무리 이상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웅대한 비전이 머릿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면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실현하는 실천자가 고승이다. 따라서 <유사>에서 <의해>는 불교적 이상국가를 실현하는 데 참여한 고승들에 대한 이야기다. 이들은 인도에서 싹트고 중국에서 자란 진리의 꽃을 신라 땅에서 신라의 언어로 표현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불교의 언어 가운데는 특별한 언어가 있다. 이른바 주문(呪文)이라는 것이다. 언어는 진리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 진리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기도 있다. 불교의 역사에서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노력은 꽤 깊다. 선불교 역시 그 가운데 하나이며 주력(呪力) 역시 그 가운데 하나다. <의해>에 이어 편찬된 편이 <신주(神呪)>편이다. <신주>에서는 밀본, 혜통, 명량 등 세 명의 고승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주력에 뛰어난 사람들이다. 진언(眞言)이라 하기도 하고, 만트라, 주력이라고 하기도 하는 주문(呪文)은 일반적인 언어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말이다. 일상 언어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의도를 노려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원어 그대로 사용한다. 물론 그 말도 번역을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 신비함이 사라진다. 그래서 힘을 잃는다. 일상적인 언어가 설명이나 이해와 관련한 것이라면, 주문의 언어는 체험적 언어다. 설명이나 이해의 언어는 번역이 가능하고 소통을 위해 번역을 해야 하지만 체험적 언어는 번역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가 절대적인 체험을 하였다면 이 체험을 그대로 말로 나타내는 것, 즉 번역은 불가능하다. 번역하면 그것을 설명이 되어버린다. 그것을 표현하려는 시도가 주문이기에, 주문은 특별한 것이며, 신비한 것이다. 불교적 진리를 전달하는 데는 일상적 언어도 필요하지만 비밀스런 언어의 방식도 필요한 법이다. 더구나 시대가 문자언어의 시대가 아닌 구술언어의 시대라면 더욱 그러하다. <의해>는 진리의 해설자에 대한 이야기라 했다. <신주> 역시 그러하다. 그래서 <신주>는 <의해>와 연장선상에 있고, 그 편찬 방식도 <의해>와 마찬가지로 고승의 전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주>는 신비의 주문[神呪]으로 진리를 전달한 스승들에 대한 이야기다.

5. <감통>편: 불국토 건설의 원리

《유사》의 각 편에서 첫 번째 기사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했다. <감통>의 첫째 기사는 ‘선도성모수희불사(仙桃聖母隨喜佛事)’다. 선도산의 성모가 불사를 도와주며 기뻐하는 내용이다. 불사는 부처님의 일인데, 그것은 곧 진리를 펼치는 일이다. 진리의 상징인 불상을 안치하는 불전을 짓고 수리하는 일도 불사이며, 진리의 말씀인 경전을 간행하고, 전달하고, 필사하는 일도 불사다. 그런가 하면 제반 불교 의식 역시 불사에 속한다. 불국토를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이 다 불사인 셈이다. 감통은 감응이라고도 하는데, 불보살과 인간의 소통을 말한다. 진정한 불사는 감통에 의해 완성된다. 감통이 없으면 불사는 형식적인 것으로 끝난다. 감통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원리와 같다. 교육은 교육자와 학습자의 일방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의 소통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선도성모수희불사’ 기사에서의 불사는 불전(佛殿)의 완성이다. 불전은 진리의 모임, 즉 법회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수행자의 수행 공간이자 진리가 전달되는 교육 공간인 교실이자 학교다. 그 학교를 짓는 것은 불국토를 건설하는 것과 다름 없다. 설화는 지혜(智慧)라는 비구니가 황폐해진 불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불사를 발원한 이야기다. 그는 힘이 모자랐으나 평소에 어진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이다. 이에 선도산의 성모가 감응하여 금 10근을 주어 53불상과 각종 불화를 조성하도록 하고, 함령(含靈, 뜻 중생)을 교화하기 위하여 법회를 열 수 있는 불전 불사를 도운 것이다.

<육면비염불서승(郁面婢念佛西昇)>에서는 강주(지금의 진주 지역)의 노비 육면이 일심

으로 염불하는 정성에 아미타불이 감응하여 극락왕생을 성취한 이야기다. 아미타신앙은 관세음신앙, 미륵신앙과 더불어 신라시대에 유행했던 3대 민중신앙이다. 아미타신앙의 지향점은 불교적 이상세계인 극락왕생이다. 그 극락왕생을 이루는 교화미디어는 염불이다. 염불은 무지의 중생들에게 알맞은 수행법이다. 팔만대장경과 같은 광대한 경전을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장좌불와의 자세로 화두 참선에 임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오로지 염불만 하면 되는 이행도(易行道)다. 그러나 이 역시 정성과 마음 없이 입으로 부처의 명호만 부른다면 아미타불의 감응이 있을 리가 없다. 옥면은 여중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따라 절에 가, 법당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에 서서 염불을 했다. 주인은 그런 옥면이 미워 곡식 두 섬을 주어 하루 저녁에 다 쪼개 하여 방해를 했다. 그러나 옥면은 초저녁에 일을 다 마치고, 다시 절에 가 밤새 염불을 했다. 잠을 막기 위해 긴 말뚝을 세워놓고 두 손바닥을 뚫어 끈으로 말뚝과 연결하여 합장하기도 했다. 이에 하늘이 감응하여, 옥면 남자는 법당에 들어가 염불하라는 소리가 들렸다. 또 하늘에서 천악(天樂)이 울리며 옥면의 몸이 솟구쳐 대들보를 뚫고 서쪽으로 가다 부처의 몸으로 화하여 연화대를 타고 빛을 받으며 서방 극락세계로 갔다. 극락세계 역시 불국토의 하나다. 극락왕생에는 권세도 필요 없고, 신분도 소용없다. 심지어 남녀도 무관하다. 오직 간절한 마음과 지극한 정성만이 불보살의 감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광덕엄장(廣德嚴莊)〉, 〈경흥우성(憬興遇聖)〉편에서도 이러한 감통의 원리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광덕은 절신을 삼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고, 엄장은 화전민이었다. 역시 둘 다 아미타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도반이었다. 광덕은 결혼한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면 단정히 앉아 한결같은 목소리로 아미타 염불을 했다. 또 결가부좌를 하고 달빛을 받으며 16관행을 하며 수행에 정성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극락왕생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엄장은 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광덕이 떠나자 광덕의 부인과 관계하려는 마음을 나타내 광덕의 부인으로부터 편잔을 듣는다. 이 광덕의 부인의 신분은 분황사의 여중이었는데, 실은 관음보살의 19응신 가운데 하나였다. 수행자의 수행을 도우려고 현신한 보살이었던 것이다. 일연은 이 설화를 기록하면서 당시 남아 있던 노래, ‘원왕생가(願往生歌)’를 아울러 《유사》에 수록해 놓았다(서재극, 1974).

달아, 이제 서방까지 가려는가요?
 무량수전에 뉘우침 오렘을 함썬 사퇴소서.
 다짐 깊으신 존전을 우러러 두 손을 모두어,
 원왕생, 원왕생 그리는 사람 있다고 아뢰소서.
 아아, 이 몸을 남겨두고 사십팔대원 이루실까.

두 손 모아 원왕생, 원왕생 하는 간절한 마음을 달에게까지 전달하고자 하고, 무량수 전에 계신 아미타부처님께 이 어리석은 중생의 뉘우침 오램을 함썌 사되어 달라고 한다. 일연은 이 간절한 마음과 정성이 왕생의 조건임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경흥은 신문왕대의 국사였고, 고승이었기에 그가 대궐에 행차할 때는 시종들이 말과 화려한 안장을 준비했고, 길 가던 사람이 길을 비켰다. 그러나 하마대에서 마른 생선을 삶아진 남루한 행색의 거사를 낮추어 보다 오히려 그로부터 산 고기(말)를 두 다리에 끼고 있다고 조롱을 당한다. 사실 그 거사는 문수보살이었던 것이고, 경흥을 깨우치기 위해 나타났던 것이다. 또 국사가 삼랑사에 있을 때 근심 병이 들어 한 달이나 낫지를 앓았을 때 한 비구니가 나타나 국사의 병은 근심으로 생긴 병이라며 11가지 모습으로 우스운 춤으로 낮게 하였다. 한 비구니도 11면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었다. 경흥이 이렇게 보살의 도움을 받은 것은 평소 경흥이 덕의 향기를 널리 뿌렸고, 삼장에도 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일연은 찬에서 “옛 성현이 모범을 보인 것은 여러 의미가 있는데, 어찌 뒷사람들은 같고 닦지 않는가?”라고 하며, 같고 닦는 노력과 정성만 보인다면 불보살은 감통함을 말하고 있다.

덕을 쌓아 국사가 된 이야기는 <정수사구빙녀(正秀師救氷女)>에서도 보인다. 겨울 해질 무렵에 절 밖에서 구걸하는 여인이 해산을 하고 얼어 죽게 되자 정수 스님이 이를 가엾이 여겨 안아 소생시키고 옷을 벗어 덮어 주었다. 맨 몸이 된 스님은 절로 들어가 짚으로 몸을 덮고 밤을 지냈더니 하늘로부터 황룡사 사문 정수를 왕사(王師)로 봉하라는 소리가 들려 왕이 국사로 책봉했다는 이야기다.

<진신수공(眞身受供)>에서는 효소왕이 망덕사 낙성식에 갔을 때, 한 누추한 비구가 함께 하기를 청하여 임금이 말석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비구의 초라한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국왕이 친히 불공 올리는 재에 참석했다 하지 말라고 하자, 그 비구 역시 왕에게 폐하도 다른 사람에게 진신 석가를 공양했다고 하지 말라고 응수한다. 그 비구는 왕의 교만하고 사치한 마음을 깨워주기 위한 불보살의 화신이었던 것이다. 왕의 권력을 가졌더라도 교만한 마음으로는 불보살과 감통하기 어려운 것이다. 비구의 말에 깨달음을 얻은 효소왕은 그를 기리기 위해 무량사를 짓는 불사를 했다.

<월명사도솔가(月明師兜率歌)>는 경덕왕대에 해가 둘이 나타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왕은 지극한 덕과 정성이 있는 월명사를 초대하여 도솔가라는 노래로서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와 비슷한 설화로 <융천사혜성가(融天師彗星歌)>가 있는데, 진평왕대에 화랑들이 금강산을 유람할 때 혜성이 심대성을 침범하는 사건이 생겨, 융천사가 노래를 불러 해결한 사건이다. 두 설화 모두 하늘의 감통을 이끌어 낸 것은 고승의 덕과 그들이 지어 부른 노래(향가)다. 고승의 덕은 그렇다 치고, 신라인이 즐겨 부른 노래인 향가조차 감통

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미디어가 된다는 것은 주목할 대목이다.

〈선율환생(善律還生)〉에서는 망덕사 스님인 선율이 불사를 다 이루기 전에 저승으로 잡혀간 사건이다. 그러나 《대반야바라밀다경》을 완성시키려는 수승한 원을 세운 덕으로 환생하게 되었다. 또 고등학교의 국어교과서에도 실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설화인 〈김현감호(金現感虎)〉는 김현이라는 한 낭군이 흥륜사 탐돌이 때, 낭자로 변신한 호랑이와 사귀어 위기에 처한 이야기다. 처자는 위기에 처한 낭군을 위해 스스로 희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신을 위해 절을 세우고 불경을 강하는 불사를 해주기를 원했다. 김현이 기꺼이 불사를 해주었고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 김현은 공을 세우고 출세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일연은 “성인(부처님)이 사물에 감응하는 것은 여러 방식이 있다. 김현이 탐돌이에 정성을 바치는 것에 감응하여, 몰래 이익을 주려했음이니 당시에 복을 받은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라고 평하였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이상국가의 실현은 통치계급, 수호계급, 생산계급 등 각 구성원 각자에게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엄격하게 정해진 법률과 제도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나 《유사》에서 이상국가 실현은 불보살과 인간의 감통에 의해서 가능하다. 불국토는 제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세계가 아니고 감응에 의해 이루어지는 세계다. 그리고 그 감응은 정해진 어떤 방식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열려 있어서 누구나 발원하고 정성으로 기원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감통〉편에서 말하고 있다.

6. 〈피은〉편: 숨어서 불국토 건설에 참여한 사람들

불교적 세계관이 그러하지만 일연 역시 드러난 세계가 세계의 전부라고 보지 않았다. 불국토 건설에 있어서도 이름과 모습이 드러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숨어서 돕는 사람도 있다. 〈피은〉편은 숨어서 불국토 건설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피은〉편의 첫 항목은 〈낭지승운보현수(朗智乘雲普賢樹)〉다. 삼량현 영취산의 암자에 숨어 사는 무명승 낭지는 당대의 고승인 원효와 지통(의상의 제자)이 스승으로 모셨을만큼 도가 고매한 사람이었다. 그는 구름을 타고 중국의 청량산과 신라를 오갈 정도로神通한 사람이었다. 그가 살던 영취산은 부처님이 가섭불 시기의 절터였다는 창건 설화가 전한다. 그렇다면 숨어사는 무명의 낭지의 거처는 부처님이 만든 불국토이고, 낭지는 그 불국토를 지켜온 사람인 것이다. 무명의 땅, 무명의 인물이라도 불국토이며, 불보살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연회도명문수점(緣會逃名文殊帖)〉 역시 영취산 어느 암자 숨어 사는 연회 스님의 이야기다. 그는 이 왕이 내리는 공명을 피해 달아나다 두 노파를 만난다. 노파로부터 명에

를 일부러 피하는 것이야말로 명예를 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을 듣고 국사(國師)를 수락하게 된다. 숨어사는 고승들의 이야기가 <피은>이지만 그렇다고 일부러 억지로 피함은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공명의식이 남아 있다는 것이므로, 드러냄과 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별 의식이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혜현구정(惠現求靜)>편의 혜현 스님도 고요함을 구해 숨어 사는 사람이지만 사람이 있으면 나와 강의를 하고, 사람이 없으면 홀로 《법화경》을 지송하는 자유자재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죽은 후 3년이 지나도 혀가 붉게 남아 있는 신이함을 나타낸 사람이다. 숨어 사는 삶이라 해서 진리의 세계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일연은 이러한 이치가 단지 불교적 세계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일반 세상이나 유교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충괘관(信忠掛冠)>, <물계자(勿稽子)>에서 말하고 있다. 서방극락에 왕성한 다섯 비구 역시 포천산 기슭에 석굴 속에 염불 수행을 해온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너무 외딴 동네여서 그 이름조차 피리촌(避里村) 피리사(避里寺)다. 그 곳의 스님들 역시 이름을 말하지 않은 무명승이다. 승려의 피은은 세상이 싫어서 은거하는 도피와는 차이가 있다. 불국토는 저명한 사람, 즉 이름이 드러난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 일연이 이 편에서 말하고자 한 것이다.

7. <효선>편: 효로써 이루는 불국토

《유사》의 마지막 편은 <효선(孝善)>이다. 불교적 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효에 불교적 효가 있고 유교적 효가 있느냐 하겠지만, 차이가 있다. 조선조 개국 공신 정도전이 <불씨잡변(佛氏雜辨)>에서도 말한 바 있고, 유자(儒者)들이 승려들을 비난할 때 늘상 걸고넘어지는 것이 인륜의 문제, 특히 효의 문제다. 중들은 불효자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다.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제 한 몸 해탈하고자 ‘가출’한 사람들이니 인륜을 저버린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일연의 견해가 <효선>에 잘 드러나 있다. 그 전에 상기해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일연이 효자라는 것이다. 1283년 국존(國尊)의 위치에 오른 뒤 서울(개경)에 머물고 있었다. 당시 어머니가 95세의 고령이었다. 일연은 왕에게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야한다고 청했고, 왕은 그 뜻을 허락하지 않다가 그 뜻이 하도 간절하여 결국 윤허하여 고향에서 편안히 모시도록 하였다. 당시 조정과 민간에서 모두 그 효행을 찬탄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그가 《유사》의 끝을 <효선>편으로 장식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효선>의 첫 편은 <진정사효선쌍미(眞定師孝善雙美)>인데, 의상 대사의 제자 진정 법사의 효행과 선행에 관한 이야기다. 가난하여 장가도 못 든 진정이 홀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스님이 시주 불사를 원함으로 그 어머니가 하나 남은 다리 부러진 솔을 시주했다. 또 진정이 군대에 있을 때 의상 대사가 태백산에서 강경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생겨, 효도를 마치고(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출가하겠다고 하였다. 그 어머니는 인생은 빨리 지나가고 불법은 만나기 어려우니 효도를 마치고 간다면 늦다 하며 당장 출가하라고 한다. 출가 후, 3년 뒤에 어머니의 부음을 듣게 된다. 이에 진정은 가부좌하여 선정에 들게 되고 7일 만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또 스승 의상 대사는 그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문도들을 데리고 소백산 추동에 들어가 90일 동안 《화엄대전》 강경 법회를 열었다. 법회가 끝나는 날, 진정의 어머니가 현몽하여 나는 이미 하늘에서 환생하였노라고 하였다. 유가의 효가 부모를 모시는 일이라면 출가는 그 효를 뛰어 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진정이 어머니를 홀로 두고 출가할 수 없다고 할 때, 그 어머니는 그것은 나를 지옥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하며, 살아서 풍성한 음식으로 봉양한들 그것이 어찌 효도라 할 수 있느냐고 질책한다. 출가하여 성불하고,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것, 심지어 영가(靈駕)까지 구원하는 것이 불교적 효임을 말한 것이다.

《대성효이세부모(大城孝二世父母)》에서는 김대성이 전생과 금생의 두 부모에게 효도한 이야기다. 대성의 어머니 역시 가난하여 품팔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스님의 권선(시주) 요청에 배 50필과 밭을 시주했다. 얼마 안 되어 김대성이 죽어 재상 김문량의 집에서 다시 태어났는데 커서 사냥을 좋아하였다. 하루는 토함산에서 곰 한 마리를 잡았는데 꿈에 그 곰이 귀신이 되어 너를 잡아먹겠다고 하므로 용서를 빌었다. 곰은 자신을 위해 절을 세우라고 했고, 대성은 곰을 위해 절을 세우고 사냥을 금했다. 이후 금생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를, 전생의 부모를 위해 석불사(석굴암)를 세워 금생과 전생의 두 부모에게 효도를 했다는 것이다. 석불사의 석불을 조각하려 큰 돌 한 개를 다듬어 감개석으로 만들려는데 갑자기 돌이 세 조각으로 갈라졌다. 대성이 화를 내다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천신이 강림하여 다 만들어놓고 갔다. 잠이 깬 대성이 남쪽 고개로 달려가 향불을 피워 놓고 천신을 공양하였다.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 최고의 불교 예술이다. 부처의 나라 [佛國]를 만들고자 한 이상을 신라 땅의 불국사와 석굴암을 통해 구현한 것이다. 이 불국의 완성이 효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면 일연이 보는 효는 단지 부모를 편안히 모시는 것에 머물지 않고, 금생의 봉양에만 그치지 않는다. 모든 존재가, 심지어 죽은 영혼까지도 다 함께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불국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불교적 효다. 일연은 불국도 건설과 효는 이원적으로 나누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으로 《유사》의 끝을 장식하고 있다.

Ⅲ. 맺음말: 《유사》에 구현된 일연의 교육사상

일연은 고려 중기의 선승(禪僧)이며 당대 최고의 불교지성이다. 1219년, 13세의 나이로 진전사에 출가한 이래 여러 절에서 수학을 하였으며, 1236년 삼계가 허황된 꿈임을 깨달았다. 이후 삼중대사, 선사, 대선사의 법계를 받았으며, 1283년 마침내 최고의 자리인 국사(國師)로 추대되었다. 그러나 그의 지성은 불교에만 머문 것은 아니다. 비문에는 그가 참선하는 여가에 다시 대장경을 읽고, 여러 대가의 주석을 속속들이 궁구하고, 유가의 서적을 두루 읽고, 제자백가를 다 관통하였다 하였다. 이러한 그가 《유사》를 쓴 것은 충렬왕 7년(1281)을 기점으로 그 이후로 보고 있다. 70대 후반에서 84세로 입적하기 직전의 저술이다(채상식, 2017: 276). 그의 시대는 몽고 전란기여서 그는 전란을 한 평생 온몸으로 체험하였다. 불법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대장경 사업에 그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불분명하다. 당대의 명문 귀족인 정안이 사재를 희사하여 남해 분사에서 간행된 대장경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그가 그 시기, 남해에 있는 자신의 집을 정림사로 만들어 일연을 주석하게 하였으니(1249년에서 1260년까지) 일연은 적어도 대장경 조판을 목도하였을 것이다. 일연의 《유사》에는 한 평생 같고 닮은 여러 학문과 쓰라린 전란의 체험이 다 녹아 있다. 필자는 일연의 《유사》에서 플라톤의 《국가》를 떠올렸다. 아테네 민주정치가 중우정치로 변질되어 가던 시점, 플라톤은 철인에 의한 이상국가를 꿈꾸고 그것을 《국가》를 통해 드러내었듯이, 일연은 전란으로 찢겨진 산하와 처참하게 내던져진 백성들을 바라보며, 《유사》를 통해 그의 국가 재건 프로젝트를 구상하였던 것이다. 젊은 시절 이상적인 정치가가 되기를 바랐지만 끝내 정치에 발을 담그지 않은 플라톤과 같이 일연 역시 현실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다. 대신 철학자 플라톤은 철학적 이상세계를 구상했고, 승려 일연은 종교적 이상세계를 구상했다. 플라톤이 이상국가 건설에 교육이 불가결한 것으로 보았듯이 일연의 이상국가 건설에도 교육은 중요한 것이다.

《유사》에 담겨 있는 일연의 교육사상의 핵심은 불국토사상이다. 불국토는 불보살의 지혜와 진리가 구현된 나라를 말하는데, 일연은 이 나라가 불국토이며, 이 나라 백성들이 불보살이라는 사상을 주장했다. 이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 《유사》라는 텍스트를 집필한 것이다. 그래서 《유사》의 각 편은 형식적, 구조적으로 그의 불국토론의 여러 측면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이>편에서는 불국토의 설계자이자 책임자들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어<홍법>편에서는 불국토 건설의 이념적 토대인 진리의 가르침인 불교를 이 땅에 들여온 사람들에 대해 할애하고 있다. 다음으로 <탑상>편에서는 부처의 가시적 상징인 탑과 불상을 통해 이곳이 곧 불국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의해>편에서는 이러한 불국토를 이루기 위해 애썼던 스승들에 관해 서술하고 있고, <감통>

편에서는 증생들이 불국토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적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삼국유사》의 끝부분인 〈괴은〉편에서는 숨어 드러나지 않았으나 불국토 건설에 공이 있는 스승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효선〉편에서는 부모님을 물질로 모시는 것을 넘어 불국토의 세계로 이끄는 것이 진정한 효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일연은 이와 같이 《유사》를 통해 불국토론을 중층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 해설하고 있다. 이 전달과 해설은 일연의 교육 실천 전략이다.

그렇다면 일연이 《유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 불국토론의 교육사상적 특징과 의미는 어떤 것일까. 만일 《유사》를 한 권의 역사서로 본다면 불국토론은 사관이 될 수 있고, 한 권의 고승전으로 본다면 불교철학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처럼 한 권의 교육고전으로 본다면 일연의 독특한 교육사상이 될 수 있다. 교육이념의 측면에서 일연의 불국토론은 국가와 개인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연이 생각하는 불국토는 공간적으로 《아미타경》이나 《미륵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타방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일연은 바로 이 땅이 원래부터 불국토였음을 《유사》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그는 고조선의 시조인 환인을 제석(帝釋)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제석은 불교의 신 인드라다. 우주의 중심인 도리천에 거주하고 있다. 고조선이 바로 불국토고, 삼국과 고려는 이를 이어받은 나라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환인과 환웅,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이야기는 보통 사람이 믿기 힘든 신화다. 이에 일연은 건국 시조의 신이함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일이어서 못 믿을 것도 없다고 했다. 그렇지만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몽고의 전란으로 황폐해진 지금의 이 땅이 불국토라는 것은 믿기 힘든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일연은 이번에는 역사적 방법으로 이 땅이 불국토라는 것을 증명하려 애썼다. 우리 눈앞에 허물어지고 부수어진 돌덩이로 남아 있는 이 탑과 불상, 그리고 헐 벗고 먼지 날리는 산야이지만 여기에도 깊은 불연(佛緣)이 있다는 것을 각종 역사적 자료를 통하여 실증하려 했다. 전쟁으로 잔멸한 이 땅이지만 원래부터 불국토라는 것을 당시 사람, 그리고 후손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인식시키려는 교육적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다.

일연의 불국토 프로젝트, 즉 불국토의 완성은 국가의 완성과 함께 개인의 완성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국가의 완성은 개인의 완성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연의 개인 완성은 마음의 변화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 《유사》를 규정하는 견해 가운데 불교설화집이라는 견해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이 책에는 수많은 설화들이 수집되어 있다. 설화들이라 해서 역사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민족의 집단적 삶의 이상과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설화다(안경식, 2004: 12-13). 《유사》에는 다양한 설화가 있지만 그는 특히 인물 설화를 많이 채록해 놓았다. 군왕에서 여러 영웅적 인물도 있지만 고승들의

이야기도 적지 않다. 고승은 덕과 학식이 높은 인물이다. 그들은 이전의 정신적, 종교적 지도자인 무당과는 다르다. 그들의 능력은 수행과 학문으로 형성된 것이기에 그 시대의 민중적 영웅이자 교육적 인간상이라 할 수 있다(안경식, 2010: 194). 그러나 원효 설화로 대표되는 《유사》에서의 몇몇 고승들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왕으로부터 민중까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고승들이 설화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묘사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사회의 최하층민으로 일자무식한 노비들과 같은 사람이 불보살의 화신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 잘난 사람이 되는 것이 설화의 세계다. 이것이 일연의 인간관이고, 교육관이다. 일연의 교육사상에서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구분이 없다. 교육자가 언제나 교육자인 것이 아니듯이 피교육자도 언제나 피교육자의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가르침과 배움, 교육자와 피교육자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다. 원효와 같은 고승도 잘났다는 분별의식에 사로잡히는 순간 곧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나 노비와 같은 천민도, 이름 없는 여성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분별의식을 떠나는 순간 불보살이 된다. 이것이 일연이 말하는 개인 완성의 길이고, 불국토를 이루는 길이다. 《유마경》에 “마음이 맑으면 국토가 청정해진다(心淸淨國土淸淨)”는 말이 있다. 온 세상을 부처님의 지혜로 빛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불국토 건설인데, 그 출발점이 마음을 맑히는 것에 있다. 마음을 맑힌다는 것은 교육에서 말하는 마음의 변화이며, 안목의 형성이다. 《유사》는 이상적 세상이란 어떤 것이며, 이상적 인간이란 어떤 것인가를 종교적 방식, 역사적 방식, 문학적 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반복적이고,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참 고 문 헌

- 김문태(1989). 삼국유사의 체제와 성격: 일연의 편찬의도와 관련하여. **도남학보**, 12, 73-85.
- 김부식(1982). **삼국사기**.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김열규·김정하·곽진석(2000). **신삼국유사**. 서울: 사계절.
- 김용옥(1991-1992). 기사강론 강좌 유인물(전체 10회).
-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2011). **감통과 신통을 보여준 신라인**. 신라문화제 학술논문집 32.
-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2012). **삼국유사 의혜편에 실린 신라 고승들의 일화와 행적**. 신라문화제 학술논문집 33.
-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2015). **삼국유사 탐상편 연구: 신라왕 경의 사찰**. 신라문화제 학술논문집 36.
- 경주시·신라문화선양회·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2017). **삼국유사 기이편 연구 1**. 신라문화제 학술논문집 38.
- 박은목(1983) 외 2인. **한국의 교육고전 연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서재극(1974). **신라 향가의 어휘 연구**. 대구: 계명대출판부.
- 안경식(2004). **구비설화에 나타난 한국 전통교육**. 서울: 학지사.
- 안경식(2005). **한국전통아동교육사상**. 서울: 학지사
- 안경식(2010). 한국 고대교육사 연구와 불교 지성으로서 고승. **종교교육학연구**, 33, 191-221.
- 안경식(2017). 시조신화에 나타난 신라의 교육이념 탐구. **한국교육사학**, 39(4), 39-60.
- 이기백(1984). 三國遺事 紀異篇의 考察. **新羅文化**, 1, 13-25.
- 이기백(2000). 三國遺事 興法篇의 趣旨. **진단학보**, 89, 1-6.
- 이도흠(2000).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 서울: 푸른역사.
- 이기상(1990). 삼국유사 탐상편 설화 연구. **논문집(청주교육대학교)**, 27, 95-124.
- 일연(1982). **교감 삼국유사**.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 일연(이재호 역, 2006). **삼국유사 1, 2**. 서울: 솔.
- 일연(최남선 교정, 1943). **新丁三國遺事**. 서울: 삼중당.
- 일연(하정룡 역주, 2003). **교감 역주 삼국유사**. 서울: 시공사.
- 조동일(1985). **한국설화와 민중의식**. 서울: 정음사.

채상식(2017). **일연 그의 생애와 사상**. 서울: 혜안.

혜산(2013). 삼국유사 기이편에 부치는 열 통의 편지. **문학 사학 철학**, 33, 한국불교사연구소, 99-129.

최병헌. 최병헌의 한국역사와 불교. **법보신문**, 2018년 6월 27일자 기사.

□ 원고접수: 2018년 10월 11일/ 수정완료: 2018년 11월 5일/ 게재승인: 2018년 11월 18일

□ 안경식: 부산대학교 교수. 연구분야는 한국전통교육, 불교교육, 아동교육
sinosan@pusan.ac.kr

〈ABSTRACT〉

A Study on the Iryeon's Educational Ideas in Samgukyusa

An, Gyeong-Sik

In this paper, I thought of th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as an educational classic and wanted to explore the ideas of the Japanese education system. Since the Japanese colonial era was an era of internal atheism and a long time of Mongolian warfare, the nation was devastated and the people's hearts were filled with despair. After the war, the story of the war ended, he was in the position of the king's teacher, who wrote the Three Kingdoms. The intention or strategy of the three countries is to recognize through the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that the land is a Buddhist ideal world, and that the people of this land are the ideal people. The whole idea is read from an educational point of view. The Three Kingdoms of Japan is a text and media to achieve its purpose. Each side is closely connected to the Japanese debate. Specifically, Gui is talking about Zizo and the King, who are the subjects of the Japanese debate. Heungkuk's book talks about the people who brought Buddhism, the teachings of truth to the land for the construction of Bulguksa. On the other side of the pagoda, the visible symbol of fire and death, the pagodas and Buddha statues, tell us that this is Bulguksa. The documentary talks about teachers and others who worked hard to complete the French national territory, while in the book, the book tells how Chinese people can enter Bulguksa. Even though Dapi, the back part of the Samguk Yusa, did not show up secretly, it is talking about teachers who worked on the construction of Bulguksa, which is beyond serving their parents with materials. In such diverse ways, the association communicates and explains the French debate to its readers in various ways, which is educational practice and meaning of educational thought. "The Three Kingdoms" is an educational classic comparable to Plato's idealism and a book that cannot be overlooked in Korean educational thought studies.

Key Words : Samgukyusa, Iryeon, educational classic in Korea, buddha's Land, ideal states